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305호

2026년 7월 12일(가해)

미사 안내	평 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 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서상순 안나 (808) 285-2379			



오늘의 미사

연중 제 15주일

▶ 1독서 : 이사야서 55,10-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 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 라. ◎ 알렐루야.
▶ 화답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2독서 : 로마서 8,18-23	▶ 복음 : 마태오 13,1-23

성가 ▶ 입당 : 19 ▶ 봉헌 : 216, 217 ▶ 성체 : 163 ▶ 파견 : 32

① 7월 19일은 피터 앤 폴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② 7월 19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7월 봉성체 안내

7월 봉성체는 7월 16일(목, 오전) 서쪽 지역, 7월 17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④ 7월 28일(화) 오전 10시 미사 없습니다.

⑤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7월 19일~25일)

⑥ 매월 넷째 주 7월 25일(토), 26일(일) '한끼 나눔'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① 2027년 예비 신자 모집

2027년 3월 27일 세례식~부활성야

교육기간 : 2026년 8월 2일~2027년 3월 27일

② 복음화 카드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 모든 신자가 적극 참여하시어 새 신자를 찾아 복음화 카드에 기록 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역 및 단체

① 연령회 모임

일시: 7월 1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가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7월 12일(일) 오후 5시
문의: 황 마리아 220-0822

③ 쉐렉 구역 모임

일시: 7월 14일(화) 오후 3:30
문의: 이 비오 227-5630

④ 기아모쿠 구역 모임

일시: 7월 18일(토) 오후 5:30
문의: 김 아가다 907-570-2034

⑤ 펠시티 구역 모임

일시: 7월 19일(일) 오전 9:30
문의: 김 사비나 721-1055

■ 故 박연숙 데레사 자매님께서 6월 24일 향년 9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 7월 15일(수) 10:30 연도: 9:30

자매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떡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허명자 로사 자매님)

허명자(로사) 자매님의 아버님 故허장현 바오로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레지오 마리아 33일 봉헌 기도안내

봉헌기간: 7월 13일(월)-8월 14일(금) 문의: 레지오 마리아

봉헌미사: 8월 15일(토) 오후 4시 미사

성모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 하기 위한 33일간의 영적 준비 여정입니다. 33일 봉헌기도책이 없으신 분들은 매일 가톨릭 굿뉴스 Maria.catholic.or.kr의 기도 지침과 www.mariatourusa.com 자료를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공지



헌금

8월 1/2일 Catholic Charities Hawaii 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7월 4일/5일: \$12,976				지난주 미사 참례자 총 301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339	\$4,930	\$1,368	\$3,339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 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STEADY AUTO 유럽차 정비 전문가 문의: 808-772-2271 European car specialist

알아봅시다

※ 미사 해설 - 성찬 전례(6) : 감사기도 중 감사송에 대해서 (2)

사제는 팔을 벌리며 말한다.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제는 손을 올리며 말한다.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사제는 팔을 벌리고 계속한다.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제는 팔을 벌리고 감사송을 계속한다.

사제는 감사송 끝에 손을 모으고, 교우들과 함께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하거나 분명 한 목소리로 낭독하며 감사송을 마친다.

◎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감사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제와 회중이 서로 교송으로 이루어져 함께 참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드높이.”와 “주님께 올립니다.”라는 부분에서 사제가 마음을 드높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느님께 대한 우리들의 봉헌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회중은 자신들의 마음, 즉 자신의 온 존재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응답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자고 초대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제가 하느님의 구원업적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 전례력에 따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업을 시기에 맞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바탕으로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천사와 성인을 포함해서)도 기뻐하며 찬양 노래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거룩하시도다(Sanctus)”입니다. 이 부분은 하느님의 구원업적을 듣고 난 후, 기쁨에 찬 환호성을 모든 공동체가 기쁘게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로마 미사 경본에서도 제시되어 있듯, 거룩하시도다의 시작은 사제가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 백성들이 기쁨에 찬 환호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제가 감사송을 마치고 팔을 모으면, 교우들은 모든 창조물들과 천상교회, 지상교회의 백성들이 환호의 상징으로 함께 노래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 연중 15 주일

"왜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는가?"

우리는 흔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 말을 잘해야 하고, 강론이 더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땅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지닌 좋은 씨앗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마음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씨앗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기도로 갈아엎어야 하고,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돌은 인내와 꾸준한 신앙생활로 치워야 합니다. 또한 세상 걱정과 욕심, 바쁨과 비교심, 미디어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같은 가시덤불도 뽑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사랑의 말 한마디, 용서, 작은 ;['봉사, 미사에 초대하는 작은 용기와 같은 일상 속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과를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하느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밭인가? 그리고 나는 오늘 누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기도로 마음을 갈아엎고, 회개로 돌을 치우며, 절제와 사랑으로 가시를 뽑아내어 좋은 땅이 됩시다.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과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삶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청합시다.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피아노 개인 레슨

모든 연령대 레슨 가능
문의:허은혜 레지나 401-871-2681
Lynnpiano123@gmail.com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